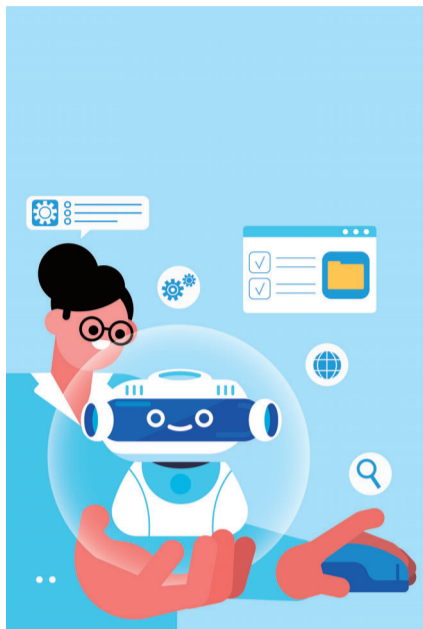


# 해남군, 인공지능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온힘'



보건복지부 사업 시범 지역 선정 인력 한계 복지가구 상담 어려워 45가지 정보 빅데이터 활용 상담 인공지능 기반 위기 상황 파악 등

해남군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나섰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진행하는 등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공지능 활용 시범사업 2차 시범지역에 선정돼 오는 22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비한 조사인력의 한계로 복지위기 의심가구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AI 기술과 45종 위기정보를 담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기상담을 통해 보다 촘촘한 위기대상자 정보 파악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AI 초기상담은 먼저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사전 안내 후, 대화형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전화시스템(대표번호 1600-2129)으로 진행된다. 본인확인 → 위기상황 파악 → 욕구상황 파악 → 심층상담 여부 확인 순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초기상담 결과는 복지전선망을 통해

읍면 담당자에게 전달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군은 지난 9일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AI 초기상담 교육을 실시했으며, AI가 진행한 상담을 바탕으로 복지위기 대상자에 대한 심층 상담으로 사각지대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AI 기반 초기상담을 통해 더 많은 위기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서비스 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수상레저 활동자 안전 집중단속 목포해경, 8월31일까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48일간 수상레저 안전 위해 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인 활동자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됐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면허 조종 △주위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 등 3대 위반행위에 더해 △기구 미등록·안전 검사 미수검과 같이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의 정착을 위해 사업자와 활동자 스스로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단속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벼 병해충 예찰 중점방제 지도 무안군, 농가 적기방제 당부

무안군은 전국적인 장마전선 형성으로 병해충 발생이 유리한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벼 병해충 발생예찰과 방제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벼 중점방제 기간을 오는 20일부터 8월15일까지 25일간 지정하고 모든 논에 일제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나선다.

장마철에는 일조시간 부족으로 벼가 웃자라 연약해질 우려가 있어 병해충 방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날이 흐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잎도열병 발생 우려가 증가하여 초기방제와 시비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멸구류는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방제해야만 미질저하, 수량감소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삭도열병은 이삭이 2~3개 펴 때 예방 위주로 방제하며, 흑명나방은 포장에 피해 잎이 1~2개 정도 보이거나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유충 피해증상이 보일 때 방제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무안군, 총 83대

무안군은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 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전기 승용·화물(총 83대)을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민, 법인, 기업,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차종별로 전기자동차는 최대 1500만원, 전기 화물차(소형)는 최대 2056만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구매 후 8년간 폐차·수출·말소 등의 사유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기후 위기 시대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많은 군민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신안군 신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삼계탕과 과일 등을 준비해 관내 어르신 120명에게 대접했다.

## 신안군 신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복 삼계탕 나눔

신안군 신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진호)가 지난 15일 신의면 거동 불편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추진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초복 더위를 식히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삼계탕을 직접 전달했다.

박진호 위원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든든한 위로와 건강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강진군, 여름철 식중독 예방 집중 점검

### 개인 위생수칙 준수 당부 등

강진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갑박 전문점, 어패류 사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을 안내하고 지도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지도 활동은 관내 음식점 101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안내문, 포스터 등 홍보 자료를 활용해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달걀 등 식재료 취급 요령, 개인위생수칙 등 여름철 주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뒀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육류, 생닭, 계란 껍질 등에 번식해 조리할 때 위생을 주의해야 한다. 병원성 대장균은 덥고 습한 여름철 오염된 육류와 생채소 등에 증식이 활발해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 치킨 등 배달음식점 및 무인식품판매점 등을 우선 선정해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



강진군 관계자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한 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관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9월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김진관 축제마케팅추진단장은 "식중독균이 번식에 취약한 여름철, 식품위생업

소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 개최 내일 문화회관에서

진도군은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를 18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다동이 아빠의 행복·소통 콘서트'라는 주제로 '가수 그룹 V.O.S'의 리더 박지현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다.

박지현 강사는 6남매의 다동이 아빠로 서 육아에 대한 고민 상담, 노하우 전달은 물론 V.O.S의 대표곡 등을 선보이며 군민들에게 많은 공감과 즐거움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는 누구나 입장 가능하다.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는 올해 4번째 강연이며 8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 해남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65세 이상 대상

해남군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어르신 접종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치료 후에도 신경통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남군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무료 접종, 그 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은 접종 비용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총 2회 접종하며 1회당 접종비용은 8만7500원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